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 차이*

조은겸(趙恩謙)**

선혜연(宣惠娟)***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피해경험, 가해경험, 가피해경험, 무경험)에 따라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기술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 상황에 따른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처리방식, 별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해 학부모의 인식을 묻는 질문지를 제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폭력 상황의 심각성과 처리 방식, 별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서 있어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학부모 인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 학부모, 가피해학생 학부모, 무경험 학부모에 비해 동일한 학교폭력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별의 필요성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학부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우리나라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상담적 접근 방법과 효과적인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위한 교사 연수를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초등학생, 학교폭력, 학교폭력 경험유형, 학부모 인식 차이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 및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대구 구지초등학교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I. 서론

학교폭력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악 중 하나로 규정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011년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더욱 더 부각되었다. 이에 2012년 교육부에서 수립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의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태 파악 및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김경아, 2011).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학교폭력은 점점 흉포화·교묘화·저연령화 되는 추세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곽영길, 2007; 채선미, 2012). 특히 「201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 중 79.6%, 가해학생 중 77.1%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를 최초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는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더불어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해준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인생의 첫 사회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상화된 폭력’이 되어 특정 집단 뿐 아니라 학생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 이르렀다(김선애, 2007; 이해영, 1999). 연구결과들(김선형, 2005; 박용인, 2008; 송자경, 2008; 오민영, 2013)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장난과 폭력을 구별하지 못해 ‘재미로’ 또는 ‘이유 없이’ 학교폭력을 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난데 반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두려움, 위축, 불안과 같은 피해후유증을 겪으며(손외숙, 2013)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감을 잃거나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비극적 사태로 발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김주희, 2005).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종단적 연구결과(Olweus, 1993)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미래의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폭력이 관련 학생들의 부적응 및 심리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큰 교육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Ahmed, 2005; Loeber & Hay, 1997; Olweus, 1996).

일반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교사가 학부모와 연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중재 및 사후처리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는 전체의 약 2~3% 정도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 건수를 보인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또한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가장 많이 의지하는 대상이 학부모라는 연구결과(채선미, 2012)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학부모가 어린 자녀의 법적대리인인 동시에 자녀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교육의 의무를 안고 있는 법적 주체(김진훈, 2006)로서 학교폭력의 문제 및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이해 당사자임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 학교 내 중요한 조정자 중 하나인 교사들은 학교폭력 분쟁과 갈등을 처리하는 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부모들에 대한 대처를 들고 있다(문용린, 2008).

즉,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는 학부모와 오해 및 분쟁이 생기거나,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광수, 2012; 김동은, 2014; 유지원, 2014; 장맹배, 2011) 이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학교폭력에 함께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함을 제기한다.

그간 학교폭력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모색되고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관련자들 간의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다양한 입장 및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김동은, 2014; 문용린 외, 2014). 즉,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처 및 처벌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적 가치와 사법적 정의가 충돌하기도 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적 대응이 강조됨에 따라(김남이, 2015; 조정실, 차명호, 2012) 학부모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양측 모두 학교폭력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의숙, 2013). 특히 최근 피해학생 재심청구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교육부, 2014a),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장가람, 2012)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최근 교육부에서는 화해 중심의 분쟁조정과 담당교사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학부모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교육부, 2014a) 이는 학교폭력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을 통한 화해 중심의 해결로 방향성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연구들(김선미, 2008; 박상미, 2007)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후관리에서 '심리상담과 조언'이 가장 긍정적인 방안으로 조사되었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사가 자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상담자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가 가해 및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부모상담에 접근해야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김선형, 2005; 박용인, 2008; 박창득, 2003; 육담성, 허창덕, 2014)으로 이루어졌고, 중등 학교급의 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들(양정숙, 2013; 윤영수, 2013; 이복열, 2013; 조영애, 2007)이 몇몇 있으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나 경험을 다룬 몇몇 연구들(김현진, 문혜련, 2012; 오민영, 2013; 정윤경, 2014)에서는 학부모의 학교폭력 경험유형 중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학부모의 인식만을 다루고 있어 학교폭력 사안을 대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에 있어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 혹은 가해와 피해경험이 함께 있는 학생들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육담성, 허창덕, 2014) 즉, 학교폭력 경험유무는 학교폭력

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해준다(한서경,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가 경험한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처리방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및 처벌의 종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학부모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부모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라 학교폭력의 처리방식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부모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라 벌의 필요성과 종류의 적절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8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 위치한 총 12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90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85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초등학생 자녀가 경험한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라 가해경험 자녀를 둔 학부모집단, 피해경험 자녀를 둔 학부모집단, 가·피해경험을 지닌 자녀를 둔 학부모집단, 그리고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없는 자녀를 둔 무경험 학부모집단으로 경험유형을 분류한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학부모집단의 분포

집단 유형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피해경험	무경험	전체
빈도(%)	16(1.9)	162(19.0)	63(7.4)	612(71.7)	853(100)

2. 연구도구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처리방식, 처벌과 관련된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 학부모가 판단하는 학교폭력 상황의 심각성 및 적절한 처리방식, 처벌의 필요성 및 적절한 처벌의 유형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 제작을 위해 우선 시나리오 제작절차를 다음과 같이 거쳤다. 첫째, 학교폭력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교육부 학교폭력 자료집 및 학교 현장 사례집을 참고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경험

이 있는 현직 초등 교사들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사례 중 초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관계적 폭력에 대한 사례(교육부, 2014b; 박은영, 2014; 윤철경, 강명숙, 2012; Horne, Newman-Carlson, & Bartolomucci, 2003)를 각 2가지씩 총 6가지를 선정하여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셋째, 6가지 시나리오의 타당화 작업을 위해 교육상담 전공 박사 1인과 박사 과정 3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경험이 있는 교사 2인, 현직 초등학교 교사 2인,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1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경험이 있는 2인과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3인에게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즉, 각 시나리오의 사례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장을 잘 반영하였는지, 시나리오의 내용이 가해 및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가독성의 측면에서 시나리오 내용이 이해가 용이하고 명확한지에 대해 확인 후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한 결과 <표 2>와 같은 최종 시나리오가 구성되었다.

<표 2>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

구분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
사례 1	A와 B는 같은 반 친구이고 B는 A의 뒷자리에 앉아 있다. 쉬는 시간이 되자 B가 A의 머리를 툭툭 쳤다. 그러자 A는 “하지 마!” 라고 했고 B는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 쉬는 시간에 B가 A의 등을 꺾꺾 눌렀고, A는 뒤돌아보면서 “하지 마!” 라고 했다. B는 그런 A의 반응을 보고 킁킁 웃으며 “장난이잖아.” 라고 했다.
사례 2	교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D가 C의 가방을 발로 차고 지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D가 C의 가방을 또 발로 차고 지나갔다. 그래서 C는 D에게 “내 가방을 왜 차고 가는 거야?” 라고 물었다. 그러자 D는 C에게 다가와 밀치면서, “모르고 건드렸는데……. 뭐!” 라고 발뺌하며 시비를 걸었다.
사례 3	오늘은 짝을 정하는 날이다. F는 반에서 E를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짝이 되기 싫었는데 하필 E가 짝궁이 되었다. E가 옆자리에 앉자 F는 E에게 “돼지야, 이 선 넘어오면 죽어.” 라고 하였다. 그러자 E는 “뭐?” 라고 했고 F는 E에게 “돼지야! 조용히 해. 살이나 빼고 말하든지……. 앞으로 말 시키지 마!” 라고 하였다.
사례 4	학급 안에서 G와 H는 짝궁이다. 어느 날부터 H는 G의 이름을 가지고 ‘헿주’ 라는 별명을 지어 불렀다. 다음 날 교실에서 H를 포함한 친구들이 G를 ‘헿주’ 라고 부르며 놀렸다. 그래서 G는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H는 G의 당황한 모습이 재미있어 계속 헿주라는 별명을 부르고 쉬는 시간에 큰 소리로 “헿주머저리, 이리 와봐!” 라며 G를 바라보았다.
사례 5	J는 생일을 맞아 같은 반 친구들을 생일파티에 초대하였다. 그러나 I는 J로부터 “야, 미안해. 나 오늘 생일파티 취소했어.” 라는 메시지를 받고 가지 않았다. 저녁 무렵, 같은 반 친구인 K가 I에게 연락을 해서 “야, 너 J랑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왔는데 넌 왜 안온거야? J가 너 안와서 속상하다고 울고 그랬어. 애들은 너가 친한 친구 생일에도 안온 아이라고 앞으로 놀지 말자고 그랬단 말이야.” 라고 했다.
사례 6	같은 반 친구인 M, S, O는 자주 어울려 다니는 친한 친구들이다. 어느 날부터 M은 S와 O가 자신보다 더 친한 것 같아 화가 났다. 그래서 M은 S의 말에 대꾸도 안하고 같이 있는 것을 은근슬쩍 피하며, S와 O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 뒤로 M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S에게 쌀쌀맞게 굴며 같이 놀아주지 않았다.

이후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다룬 선행 연구들과 초등학교 교사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처리방식, 가해학생 처벌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중 처벌의 적절성 문항을 구성하기 위한 처벌의 종류는 [학교폭력에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를 바탕으로 구성하되 실제 초등학교 현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처벌 대상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퇴학'을 제외하고 서면사과에서 '공개사과' 부분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적사항과 경험유형을 기입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상황을 묘사한 6개의 시나리오 사례별로 각 상황의 심각성 및 처리방식, 처벌 필요성 및 유형에 관한 12문항과 응답자 인적사항에 대한 3문항으로 구성된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폭력상황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묻는 문항 중 학교폭력 상황의 심각성, 처벌의 필요성 및 처벌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은 5점 Likert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구성과 문항별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역별 문항 구성 내용

영역	문항번호	내용	Cronbach' α
응답자 인적사항	1	학생과의 관계	
	2	자녀학년 및 성별	
	3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	
학교폭력상황에 대한 학부모 인식	1	학교폭력 상황의 심각성	.78
	2	학교폭력 상황의 처리 방식	.76
	3	학교폭력 상황에서 처벌의 필요성	.81
	4	처벌의 적절성	
		서면사과	.87
		공개사과	.82
		접근금지명령	.84
		교내봉사활동	.85
		사회봉사활동	.90
		특별교육이수(학부모 동반)	.88
		출석정지	.91
		학급교체	.89
		전학	.91

3. 분석 방법

학부모의 인적사항 및 학교폭력 경험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다. 단, 등분산 가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Kruskal-Wallis와 Dunnett T3를 실시하였다. 또한 명목변인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처리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학부모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부모들은 시나리오에 나타난 학교폭력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편이라고 인식하였고(M=3.60~4.11),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피해경험, 무경험, 가피해경험, 가해경험 순으로 학교폭력 상황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교폭력 경험유형별로 학교폭력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학부모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4.669$, $df=3$, $p=.000$). 특히 피해경험 학부모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폭력 상황을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N	M	SD	Dunnett T3	Kruskal-Wallis
가해경험(a)	16	3.60	0.56	<i>a, c, d < b</i>	$\chi^2=24.669$ (3) $p=.000$
피해경험(b)	162	4.11	0.48		
가피해경험(c)	63	3.78	0.61		
무경험(d)	612	3.98	0.47		
합계	853	3.99	0.49		

2. 학부모의 학교폭력 처리방식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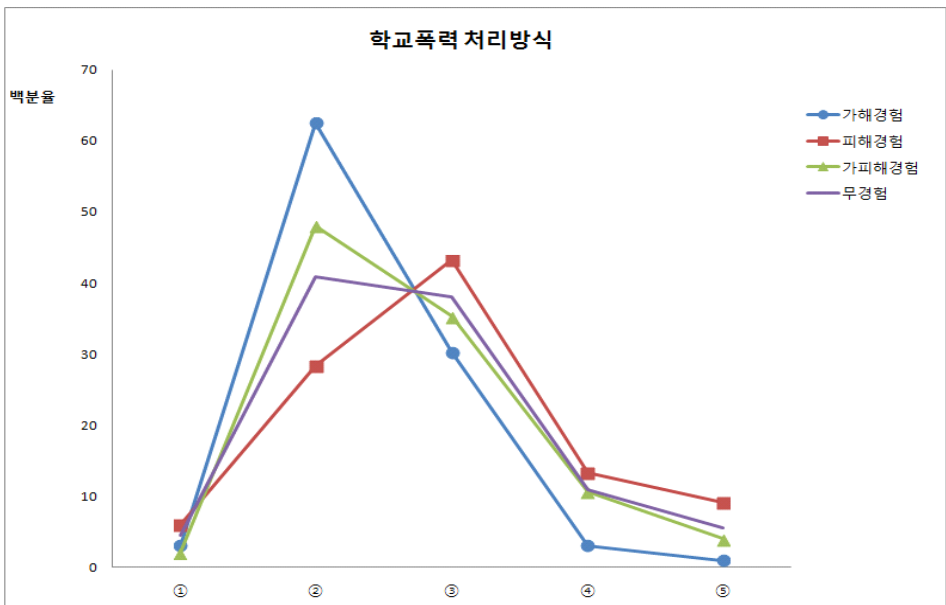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방식에 대한 적절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 가해경험 학부모들은 ②교사 훈계, ③교사의 학부모(가해·피해) 면담, ④교

사의 학부모 간 합의 유도, ①양쪽 학부모(가해·피해) 만남, 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리순
 으로, 피해경험 학부모들은 ③교사의 학부모(가해·피해) 면담, ②교사 훈계, ④교사의 학부모 간
 합의 유도, 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 ①양쪽 학부모(가해·피해) 만남 순으로, 가·피해경험
 및 무경험 학부모들은 ②교사 훈계, ③교사의 학부모(가해·피해) 면담, ④교사의 학부모 간 합의
 유도, 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 ①양쪽 학부모(가해·피해) 만남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처리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처리
 방식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106.338, df=12, p=.000$), 그래프로 나
 타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5>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처리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

		①학부모 만남	②교사 훈계	③교사의 학부모면담	④교사의 합의유도	⑤학폭 위원회	전체
가해경험	빈도(%)	3(3.1)	60(62.5)	29(30.3)	3(3.1)	1(1.0)	96(100.0)
피해경험	빈도(%)	58(6.0)	275(28.3)	420(43.2)	129(13.3)	90(9.2)	972(100.0)
가피해경험	빈도(%)	9(2.1)	203(48.0)	149(35.3)	45(10.6)	17(4.0)	423(100.0)
무경험	빈도(%)	166(4.5)	1500(40.9)	1395(38.0)	406(11.0)	204(5.6)	3671(100.0)
전체	빈도(%)	236(4.6)	2038(39.5)	1993(38.6)	583(11.3)	312(6.0)	5162(100.0)
$\chi^2(df)$		106.338(12), $p=.000$					



[그림 1]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처리방식 백분율

3. 학부모의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인식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가해학생 처벌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M=3.78), 특히 피해경험(M=3.95), 무경험(M=3.77), 가·피해경험(M=3.62), 가해경험(M=3.35) 학부모의 순으로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유형별로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chi^2=24.646$, $df=3$, $p=.000$), 가해학생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에 비해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을 비교적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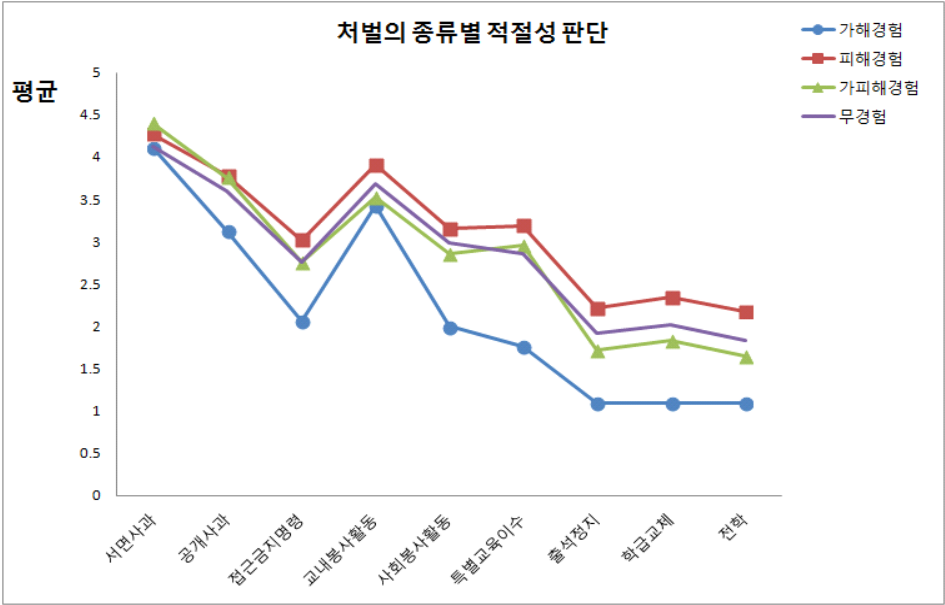
<표 6>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처벌의 필요성

	N	M	SD	Dunnett T3	Kruskal-Wallis
가해경험(a)	16	3.35	0.60	a, c, d < b	$\chi^2=24.646$ (3) p=.000
피해경험(b)	162	3.95	0.63		
가·피해경험(c)	63	3.62	0.71		
무경험(d)	612	3.77	0.59		
합계	853	3.78	0.61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종류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 학부모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는 9가지 처벌에 대하여 피해경험, 무경험, 가·피해경험, 가해경험 학부모 순으로 가해학생 처벌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가해경험 학부모는 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같이 강도 높은 처벌에 대한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다.

<표 7> 처벌의 종류별 적절성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서면 사과	공개 사과	접근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가해경험	M	4.11	3.13	2.06	3.43	2.00	1.76	1.09	1.09	1.09
	SD	.84	1.14	.99	1.23	1.34	.84	.22	.22	.22
피해경험	M	4.27	3.78	3.02	3.91	3.15	3.19	2.21	2.34	2.17
	SD	.61	.73	.96	.79	1.04	.97	.99	.96	.95
가·피해경험	M	4.40	3.76	2.75	3.52	2.85	2.95	1.72	1.83	1.64
	SD	.61	.83	.90	1.02	.95	1.11	.61	.78	.70
무경험	M	4.12	3.60	2.75	3.68	2.99	2.85	1.92	2.01	1.83
	SD	.71	.80	.85	.85	.99	.99	.75	.78	.76
전체	M	4.17	3.64	2.80	3.72	3.00	2.92	1.96	2.05	1.88
	SD	.69	.80	.89	.86	1.01	1.01	.81	.84	.82



[그림 2] 처벌의 종류별 적절성 판단의 평균

초등학생 자녀가 겪은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처벌의 종류에 대한 적절성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9가지 처벌의 종류에 따라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학부모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면사과와 공개사과의 방법을 제외한 모든 처벌에 대해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른 적절성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학교폭력 경험유형별 처벌의 종류에 따른 적절성 판단의 차이

학교폭력 경험유형	M	SD	F(df)	Scheff	Dunnett T3	Kruskal-Wallis
서면사과	가해(a)	4.11	.84	3.138* (3), p=.025		
	피해(b)	4.27	.61			
	가피해(c)	4.40	.61			
	무(d)	4.12	.71			
공개사과	가해(a)	3.13	1.14	3.427* (3), p=.017		
	피해(b)	3.78	.73			
	가피해(c)	3.76	.83			
	무(d)	3.60	.80			
접근금지명령	가해(a)	2.06	.99	5.441** (3), p=.001	a, d < b	
	피해(b)	3.02	.96			
	가피해(c)	2.75	.90			
	무(d)	2.75	.85			

	학교폭력 경험유형	M	SD	F(df)	Scheff \square	Dunnett T3	Kruskal- Wallis
교내 봉사 활동	가해(a)	3.43	1.23			$d < b$	$\chi^2 = 10.469$ (3), $p = .015$
	피해(b)	3.91	.79				
	가피해(c)	3.52	1.02				
	무(d)	3.68	.85				
사회 봉사 활동	가해(a)	2.00	1.34			$a, c, d < b$	$\chi^2 = 9.926$ (3), $p = .019$
	피해(b)	3.15	1.04				
	가피해(c)	2.85	.95				
	무(d)	2.99	.99				
특별 교육 이수	가해(a)	1.76	.84	8.211*** (3), $p = .000$	$a < b, c, d$ $d < b$		
	피해(b)	3.19	.97				
	가피해(c)	2.95	1.11				
	무(d)	2.85	.99				
출석 정지	가해(a)	1.76	.84	8.211*** (3), $p = .000$	$a < b, c, d$ $d < b$		
	피해(b)	3.19	.97				
	가피해(c)	2.95	1.11				
	무(d)	2.85	.99				
학급 교체	가해(a)	1.09	.22			$a < b, c, d$ $c, d < b$	$\chi^2 = 31.019$ (3) $p = .000$
	피해(b)	2.34	.96				
	가피해(c)	1.83	.78				
	무(d)	2.01	.78				
전 학	가해(a)	1.09	.22			$a < b, c, d$ $c, d < b$	$\chi^2 = 27.411$ (3) $p = .000$
	피해(b)	2.17	.95				
	가피해(c)	1.64	.70				
	무(d)	1.83	.76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가 경험한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라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적 개입과 학부모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진훈, 2006; 양정숙, 2013; 윤철경, 강명숙, 2012; 임은정,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김진훈, 2006),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교폭력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부모는 자녀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므로(박병량, 주철안, 2012; 송재홍, 김성철, 김선미, 2014; 이상철, 2012; Mayer & Leone, 1999; O'connell, 1999)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민감성이 높아진 것은 학생의 학교 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사 및 학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생 자녀가 경험한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폭력 상황에서 심각성을 판단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피해경험 학부모집단이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해경험 학부모 집단의 경우 가장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이 가장 큰 영향 요인임을 밝힌 육담성, 허창덕(201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서, 학부모 역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이 중요한 요인을 시사해준다. 즉, 학부모가 학교폭력 상황을 판단할 때는 자녀와 동일시하여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피해학생 학부모는 당혹감과 분노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가해학생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학생들끼리의 교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이상철, 2012)와도 일치되는 결과로서, 학교폭력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고유경, 강영구, 2012; 조정실, 차명호, 2012)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피해경험 학부모들의 폭력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다른 학부모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주변 사람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가벼이 여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정윤경, 2014)와 유사한 결과로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교사나 학교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과 정서가 일반 학부모들과 다를 수 있음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적절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즉, 단순한 사건처리를 위한 학부모 상담이 아닌,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기초로 학부모 상담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셋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라 학부모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처리방식에 있어 학부모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해, 가피해, 무경험 집단의 학부모들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는 선에서 처리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학부모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고 만나는 것은 적절한 처리방식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해결을 교사에게 위임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김진훈, 2006), 학교폭력을 아이들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문용린 외, 2007; 방기연, 2011)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가해경험 학부모의 대부분은 다른 학부모들에 비해 교사가 학생들을 훈계하는 선에서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경험 학부모는 부모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피해경험 학부모를 만나는 것을 꺼리거나 그 상황

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연구결과(조정실, 차명호, 2012)와 일치한다. 반면에 피해경험 학부모는 교사가 양쪽 학부모들과 면담하여 처리하거나 양쪽의 학부모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학생 학부모의 책임을 중요시함을 시사해준다. 특히 피해경험 학부모들은 가해경험 학부모에 비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적 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식을 보호하려는 가해학생 학부모와 피해학생 학부모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대립될 수 있는 지점(손외숙, 2013)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넷째, 초등학생 자녀가 경험한 학교폭력 경험유형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학생 처벌의 필요성과 처벌 종류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 학부모의 경우 처벌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데 반해 가해경험 학부모의 경우 처벌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처벌을 받는 가해학생 학부모가 별(징계)이 과하다고 여기는 반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별(징계)이 너무 가볍다고 여기고 있다는 고유경, 강영구(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고재홍(1995)의 연구를 통해 가해학생의 가해 수준이나 폭력성이 애매할 경우 피해학생 학부모의 판단에는 별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불편한 반면에 가해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는 것이 더 불편하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피해경험 학부모들과 달리 가해경험, 가피해경험, 무경험 학부모의 경우 비슷한 정도를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해 학생을 처벌함으로써만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려는 입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김남이(2015)는 가해 행동에 대한 안전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처벌의 일차적인 이점에 비해 교육보다 처벌을 강조하고 학생에게 책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처벌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학부모들 역시 사법적 처벌보다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섯째, 가해학생 처벌 종류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차이를 확인한 결과, 피해학생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에 비해 서면사과, 교내봉사활동, 공개사과, 사회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 접근금지명령,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과 같은 모든 종류의 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데 반해 가해학생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에 비해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와 같은 강도 높은 처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내봉사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적절한 처벌로 인식하고 있다는 손희권(2002)의 연구나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해 효과성을 가장 낮게 인식한다는 이승현 등(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교내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이 다른 처벌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인식한다는 이승현 등(2014)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가해 및 피해학생 학부모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처벌과 연구결과가 혼재되는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이수와 같은 처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는 학부모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유경, 강영구, 2012) 가해학생 학부모와 피해학생 학부모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적절한 처벌의 기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부모의 인식을 경험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증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들 서로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갈등을 좀 더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 및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학부모 상담 및 교육, 그리고 교사 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이외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방관자인 일반학생의 학부모 또한 연구함으로써 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개입이 필요하며 학부모의 인식변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김지연, 하혜숙, 2015; 양야기, 이정숙, 2009; 윤초희, 박상근, 신인수, 2004). 그러나 연구대상인 학부모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대부분 자녀의 어머니가 응답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포함한 학부모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유형 중 가해학생 학부모의 수가 다른 유형의 학부모 수에 비해 적게 표집된 것을 감안하며 가해학생 학부모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경험유형 이외에 학부모의 학교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인 자녀의 성별, 자녀의 학년, 부모의 성별, 부모의 왕따 경험, 학교폭력 유형 등(문용린 외, 2007; 박종효, 2013; 이숙정 외, 2014; 한국인터넷 진흥원, 2014)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유경, 강영구(2012). **함께 만드는 평화로운 학교: 학부모상담실 상담사례로 본 학교폭력토론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고재홍(1995). 처벌크기 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2), 29-50.
- 곽영길(2007).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교육부(2014a). **2014년도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2014b).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 김경아(2011).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 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능력 및 아동이 인식한 학부모 공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김광수(2009). 학교폭력의 실태 분석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남이(2015). Q방법론을 활용한 학교폭력의 '무관용 원칙'에 대한 인식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동은(2014).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대응 양상.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선미(2008). 초등학교 학교상담에 관한 교사·학부모·학생의 인식 비교.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 김선애(2007). 가정, 학교, 친구 관련변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1), 101-126.
- 김선형(2005).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사·학생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주희(2005).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피해 유형과 정서 행동문제 및 사회 능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지연, 하혜숙(2015). 학교상담의 관점에서 바라본 회복적 사법: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491-517.
- 김진훈(2006).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현진, 문혜련(2012).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3, 431-466.
- 문용린, 최지영, 백수현, 김영주(2007). 학교폭력의 발생과정에 대한 남녀 차이 분석: 피해자 상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3), 703-722.
- 문용린(2008). 학교폭력 사태 및 대처방안.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 안전대책 세미나**

자료집: 학교폭력, 10, 3-12.

- 문용린, 김준호, 임영식, 곽금주, 최지영, 박병식, 박효정, 이규미, 임재연, 정규원, 김충식, 이정희, 신순갑, 진태원, 장현우, 박종효, 장맹배, 강주현, 이유미, 이주연, 박명진(2014). **학교폭력예방과 상담(제2판)**. 서울: 학지사.
- 박병량, 주철안(201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박상미(2007).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현황 및 대처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 박용인(2008).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박은영(2014).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박종효(2013).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특성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4(1)**, 69-95.
- 박창득(2003). 초등학교 학교폭력 현상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 방기연(2011).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2(5)**, 1753-1778.
- 손외숙(2013). 학교폭력의 실태분석과 예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손희권(2002). 중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학생 체벌 대안. **아동과 권리, 6(1)**, 125-161.
- 송재홍, 김성철, 김선미(2014).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학교안전성과 학교폭력증후군의 관계에서 발달자살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831-835.
- 송자경(2008).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학교폭력 대한 견해 비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양야기, 이정숙(2009).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태도,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4)**, 369-378.
- 양정숙(2013).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오민영(2013).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유지원(2014). 과정드라마를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교육연극학, 6**, 59-80.
- 육담성, 허창덕(2014). 학교폭력의 유형별 경험 및 학생 당사자의 심각성 인식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0(1)**, 143-158.
- 윤영수(2013).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처 프로그램에 대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윤철경, 강명숙(2012).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초희, 박상근, 신인수(2014). 국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5(1), 189-215.
- 이복열(2013).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상철(2012). 학교폭력 당사자의 법적 책임과 교육적 시사점: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30(3), 125-153.
- 이숙정, 박소연, 이희현, 유지현(2014). 학교폭력예방 학급환경 진단도구 개발. **아시아교육연구**, 15(4), 239-263.
- 이승연, 오인수, 이주연(2014).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피해, 가해-피해 집단의 심리학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21(5), 391-416.
- 이승현, 정제영, 강태훈, 김무영(2014).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66.
- 이은주(2007).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11(2), 291-317.
- 이은희(2009). 학교요인과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중학생의 등교공포와 교내폭력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3), 281-304.
- 이혜영(1999). 따돌림 해결을 위한 현장 모델 개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임은정(2012).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홀리스틱교육연구**, 16(2), 129-149.
- 장가람(2012). 학교폭력 현상 및 정책에 관한 교원들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맹배(2011). 학교폭력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장희화, 최선미, 황은경, 박성희(2012). **학교폭력 상담 I, 초등학교편**. 학지사.
- 정윤경(2014).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리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정종진(2012). **학교폭력 상담 V, 이론과 실제편**. 서울: 학지사.
- 조영애(2007).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태도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조정실, 차명호(2012). **학교폭력 상담 VI, 교사·학부모 편**. 서울: 학지사.
- 채선미(2012).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4). **2014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한국인터넷진흥원(2014). **캐나다 학부모의 사이버폭력 인식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서경(2015).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따른 학부모 공감과 학교적응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Ahmed, E., & Braithwaite, J. (2005). Forgiveness, shaming, shame and bullying.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8(3), 298-323.
- Anderman, D., Archer, R. L., & Harris, J. L. (1975). Effect of emotional empathy on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43, 156-167.
- Berger, K. S. (2007). Update on bullying at school: Science forgotten?. *Developmental Review*, 27(1), 90-126.
- Goethals, G. R. (1976).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some social influence phenomena. In J. H. Harvey, W.J. Jckes, & R. F. Kidd(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1, 291-310.
- Horne, A. M., Newman-Carlson, D., & Bartolomucci, C. L. (2003). *Bully Busters: A Teacher's Manual for Helping Bullies, Victims, and Bystanders: Grades K-5*. Research Press.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371-410.
- Mayer, M. J., & Leone, P. E. (1999). A structural analysis of school violence and disruption: Implications for creating safer schools.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333-356.
- O'Connell, P. A. U. L., Pepler, D., & Craig, W. (1999).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s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4), 437-452.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15), 315-341.
- Olweus, D. (1996). *The revised bully/victim questionnaire*. University of Bergen, Research Center for Health Promotion.
- Pronin, E., Kruger, J., Savtisky, K., & Ross, L. (2001). You don't know me, but I know you: the illusion of asymmetric ins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4), 639-656.
- Robinson, R. J., Keltner, D., Ward, A., & Ross, L. (1995). Actual versus assumed differences in construal: "Naive realism" in intergroup perception and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404-417.
- Ross, L. D., Lepper, M. R., Strack, F., & Steinmetz, J. (1977). Social explanation and social expectation: Effects of real and hypothetical explanations on subjective likeli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11), 817-829.

* 논문접수 2016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3월 14일 / 2차 심사 2016년 5월 4일 / 게재승인 2016년 6월 3일

* 조은경: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구 구지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학교폭력상담, 학부모상담이다.

* E-mail: reser7@hanmail.net

* 선혜연: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상담과 심리검사",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상담이론과 실제: 다문화 관점의 통합적 접근" 등이 있다.

* E-mail: shy@knue.ac.kr

Abstract

The Difference in Parent's Percep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o, Eun-kyoum*

Seon, Hye-y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arents' perception of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bullies, victims, bully-victims, and non-involved group). For this purpose, This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pecially designed to be a scenario describing a school violence situation; this questionnaire could ask parents' perceptions of the seriousness, method of dealing,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in parent's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method of dealing,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Second, victims' parents were recognized about the same school violence situation seriously and that the need for punishment is higher than other parents'. Lastiy, as a judge of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s' perception between bullies and victims. Based up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some interventions and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for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Korea and the teacher training for effective treatment of school violence issues.

Key words: Elementary school children,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experience, Parents' perception differences

* First author, Daegu Guji Elementary school

** Corresponding Auth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